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

강모열
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
직업환경의학과 교수

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. 그중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(10.2%)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(19.3%)에게서 우울 증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[1]되었고, 잦은 이직과 경험 부족 탓에 고립감[2]도 높게 나타났다. 건당 수수료를 지불받는 형식은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로, 이는 저임금·여성 노동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[3]도 있다.

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

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으로 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 모니터링이 수행된 바 있다.[4] 연구는 대리운전, 음식배달,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근무시간 중 노출되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, 음식배달 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에게서 진동·소음·담배 연기 등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가사 노동자의 경우 화학제품·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는 비율이 높았는데, 이는 업무 도중 청소 및 세탁 등에 쓰이는 락스, 세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시사한다.

---

1) Cai, Y.; Kong, W.; Lian, Y.; Jin, X.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Informal Employees in the Digital Era. Int. J. Environ. Res. Public Health 2021, 18, 5211.

2) Liu, W.; He, C.; Jiang, Y.; Ji, R.; Zhai, X. Effect of Gig Workers'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on Their Task Performance in a Sharing Economy—A Perspective from the Mediation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the Moderation of Length of Service. Int. J. Environ. Res. Public Health 2020, 17, 2208.

3) Davis ME, Hoyt E. A longitudinal study of piece rate and health: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workers in the US gig economy. public health. 2020 Mar 1;180:1-9.

4) 강모열 등. 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패널 구축 연구.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2022

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화가 난 고객을 다루는 비율,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대리운전과 음식배달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. 최근 1년간 폭력 경험을 물었을 때 언어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.2%,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이 14.5%, 신체적 폭력이 6.2%, 인격 모독이 54.7%에 이르렀다. 가사 노동자의 경우에는 업무 중 집안 물품 파손 책임 및 이에 대한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. 응답자 중 42%가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응답하였으며, 11%가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오해를 경험했다고 한다.

일반 노동자 대비 유병비 높은 플랫폼 노동자

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요통, 상하지 근육통 등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. 2020년 근로환경조사 내 일반 노동자 집단을 기준으로 연령·성별 표준화 유병비(SPR)를 계산해본 결과, 특히 가사 노동자에게서 요통, 상하지 근육통의 표준화 유병비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음식배달과 대리운전 노동자 또한 일반 노동자집단과 비교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표준화 유병비가 대부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.
수면 및 정신건강 관련해서는, 17.9%가 임상적인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. 우울증 선별 도구를 통해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15.1%로 확인되며, 대리운전과 음식배달에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유병비가 각각 4.9, 3.7로 높았다. 불안감 또한 대리운전 기사에서 표준화 유병비가 1.8으로 높게 나타났는데, 사회적 안전망 부실과 열악한 근무 환경(평점, 고객 및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, 사고 위험 등)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.
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일한 경험(프리젠티즘)에 대해 응답자의 27.8%가 '그렇다'고 했다. 그중 67.3%가 생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. 일반 노동자 집단에서의 프리젠티즘 비율이 11.9%인 것에 반한다면,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. 반면 가사 노동자의 경우 프리젠티즘의 원인으로 86.4%가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.

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종합해봤을 때,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평점이나 고객들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. 또 근골격계 위험이나 사고 위험, 스트레스,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도 취약하다. 이외에도 직종별 고유한 건강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고 플랫폼 노동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, 구조적 취약점을 상쇄시킬 대비책이 필요하다.